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larksons Platou says tanker owners more reluctant to sell as recovery nears

Clarksons에 따르면, 탱커 선주들이 보유 선박의 중고 매각을 멈추고 탱커 운임 회복의 시점을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됨. 중고 탱커의 시장 가치가 최근 상승했고, 추가 상승여력도 남아있으나 탱커 시장 자체의 회복 가능성을 두고 선주들의 매각 결정은 신중해야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US renewable credits emerge as market mover for product tankers, says Braemar

미국 환경규제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선 수요 집중도가 북유럽지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됨. RVO(Renewable Volume Obligation)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기업체들은 제품믹스에 바이오연료 비중을 늘려야하는 상황이며 PC선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기존 선대의 20% 육박

컨테이너선 수주잔량이 현행 서비스 선대의 17.6%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보도됨. 2019년 3분기 말에는 8.8%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도됨. 컨테이너선 발주 열기는 여전하며 HMM, Cosco, Hapag-Lloyd 등은 향후 몇 달 내 신조선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세 non-stop

동서 3대 기간항로의 컨테이너 스팟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됨. 수송 수요 증가, 항만 체선 현상, 공 컨테이너 부족 등 세 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컨테이너 운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중공업, 670억 규모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수주

두산중공업의 독일 자회사인 두산렌체스는 EPC사인 포스코건설과 670억원 규모의 폴란드 바르샤바 WtE 플랜트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두산렌체스는 보일러 2기와 질소처리기 등 주기기를 2024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한국경제)

LIG넥스원, '해상감시레이더-II' 양산계약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1,640억원 규모의 해상감시레이더-II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해상감시레이더-II는 LIG넥스원이 체계개발을 맡아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이번 양산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장비는 내년부터 해군을 통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고 보도됨. (아시아경제)